고급휘발유, 강남 소비량 “최대”

14만8000배럴로 전체 28% 차지 … 2005년 42%보다는 낮아져

국내에서 유통된 고급휘발유의 3분1이 서울 강남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2012년 1-9월 전국에서 판매된 고급휘발유 53만3000배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만9000배럴이 서울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비량은 총 14만8000배럴로 서울 소비량의 59.4%, 전국의 27.7%에 달했다.

강남구가 8만7000배럴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대의 소비량을 기록했고, 서초구 4만9000배럴, 송파구 1만2000배럴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 3구의 고급휘발유 소비량이 전국의 42%에 달했던 2005년과 비교하면 비중은 다소 떨어졌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11만5000배럴로 가장 높았고, 부산 3만3000배럴, 인천 2만3000배럴, 울산 1만8000배럴, 대구 1만6000배럴, 대전·충남 1만2000배럴 순이었다.

일반 휘발유에 비해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는 출력이 월등히 좋아 최고급 외제승용차나 경주용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별 고급휘발유 소비량은 보통 외제승용차 판매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판매된 외제차는 1만2767대로 전국 판매량의 20%를 차지했고, 서울지역 총 판매량에서 강남 3구의 비중은 41.5%에 달했다.

시장 관계자는 “경기불황 탓에 고급휘발유 소비가 다소 줄긴 했지만 강남지역의 소비층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다만, 지방의 외제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있는 만큼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02>